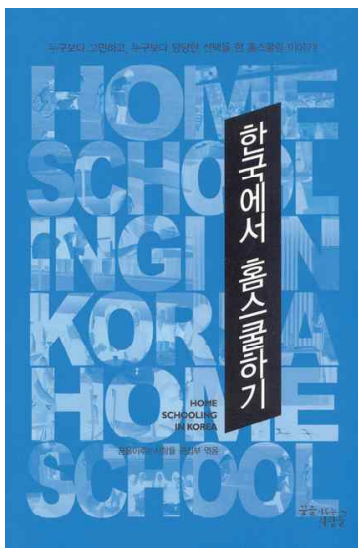


# 한국에서 홈스쿨하기

박상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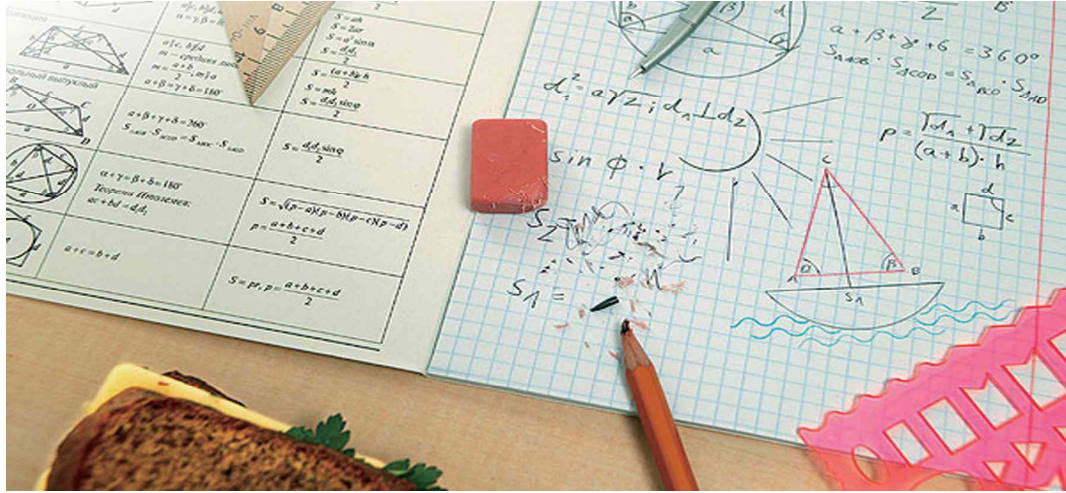
안점식, 우도환, 마병식, 안정진, 박진하, 권장희 저  
꿈을이루는사람들(DCTY), 2011년 06월 27일

## 한국 최초의 기독교홈스쿨 저서

“아, 드디어 나왔구나.” 이 책의 원고를 받아 본 후 내 입에서 흘러 나온 감탄의 소리였다. 한국의 홈스쿨을 하는 부모들과 전문가들에 의해 저술된 첫 번째 기독교 홈스쿨 저서라고 할 수 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단비처럼 홈스쿨에 대해 궁금해하는 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촉촉이 적셔줄 수 있는 책이다. 홈스쿨을 왜 하는지? 그리고 홈스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마치 마주보고 대화하듯이 자상하고도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러 명의 저자들이 홈스쿨의 다양한 측면들을 써 내려가는 것이 마치 예쁜 그림 퍼즐을 하나씩 맞추어 가는 느낌이다.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아하’하며 홈스쿨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함께 홈스쿨에 대한 용기까지 얻게 되는 것이다.

이 책이 저술되기까지는 수 십년의 세월이 걸렸다. 이 책은 단지 책상에서 머리로 쓴 책이 아니라 저자들이 오랜 세월동안 직접 홈스쿨을 하면서, 그리고 홈스쿨 운동에 참여하면서 깨닫고 느끼고 확신하게 된 것들을 정리하였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의 적용이 가능한 책이다. 저자들 한 분 한 분이 한국의 기독교 홈스쿨링 운동을 이끌고 있는 분들이고, 이 분들이 쓴 주제에 대해서는 가장 고민을 많이 한 분들이라는 점에서 이 책은 매우 권위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로 번역되어 다른 나라의 홈스쿨러들에게도 읽혀져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만한 책이다. 그동안 홈스쿨에 관심있는 많은 사람들이 홈스쿨에 대한 안내서가 제대로 없다고 안타까워했지만 이제는 이 책으로 인하여 더 이상 불평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책은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왜 홈스쿨을 하는가?’로서 왜 기독교 홈스쿨인가, 홈스쿨 시작하기, 기독교 세계관으로 어떻게 홈스쿨을 할 것인가, 고전교육으로 가르치기, 성경의



단지 홈스쿨에 대한 테크닉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자녀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홈스쿨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기독교교육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는 것이다.

명령: 자녀 제자화, 다양한 자녀, 다양한 부모, 다양한 홈스쿨, 아버지의 역할과 성공적인 홈스쿨, 홈스쿨의 미래, 기독교 홈스쿨과 교회 공동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2부는 '어떻게 홈스쿨을 해야 하는가?'로서 성경적 육아법, 홈스쿨 스케줄링, 자녀를 위한 커리큘럼 만들기, 전략적 홈스쿨 공동체: CO-OP, 협력모임의 활용과 사례, 지역 네트워크 모임의 시작과 운영, 홈스쿨에서의 품성 교육, 홈스쿨 가정의 미디어 통제, 홈스쿨러를 위한 음악 이해, 홈스쿨러를 위한 대학 진학과 준비, 그리고 기독교 홈스쿨과 학과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부록에는 홈스쿨에 도움이 되는 도서목록이 망라되어 있다.

이 책은 홈스쿨을 준비하는 사람은 물론 자녀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할 책이다. 이 책은 단지 홈스쿨에 대한 테크닉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자녀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녀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일깨우고 있고, 교육이 무엇인지를 본질적으로 깨닫게 하고 있다. 행여 홈스쿨에 대해서 저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홈스쿨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기독교교육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책은 홈스쿨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재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교육학도들을 위한 교과서로, 그리고 기독교학교나 교회의 부모교육 교재로 귀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녀문제가 최대 고민인 한국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한국교회의 목회자들도 꼭 정독해야 할 책이다. 이 책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육으로 더 충만해지기를 기도한다.



박상진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이며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소장, 입시사교육바로세우기 기독교운동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